

대행 스님

무조건 근본에 말려 놓고 그 빗장을 쥐고 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최종의 근본은 마음이라고 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공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좀 있으면 6 · 25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제가 봤던 그 문제들이 너무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느 불자가, 그때 당시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의 아버집니다. 그런데 스님네들하고 항상 법담을 나누시고 항상 이 불법을, 마음을 공부하시다가 아드님 삼 형제와 따님 둘 해서 오 남매를 두셨습니다. 유복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그분은 그분대로 그렇게 정성이 지극해서 그랬는지 자기가 알아서 그랬는지 아드님을 딴 데로 피난을 보내셨습니다. 피난을 보내고 나서 그분들은 저 북괴군한테 죽 나래비로 모두 이렇게 엮여 가지고 새벽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오십 명 끌려갔는데 말입니다, 앞에서 총질을 하는데 난데없이 마음에서 '얼른 쓰러져라, 쓰러져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게, 마음에서 나는 소리는 소린데 '이게 부처님의 소리인가 보다.' 하고선 그냥 푹 쓰러졌다는 겁니다. 푹 쓰러지고 보니까 자기 위로 사람들이 전부 총을 맞아서 쓰러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신은 말짱한데 총에 맞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자기 옷이 풍풍 젖더랍니다. '그래도 죽은 척하라.' 하고 또 한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얼마쯤 있다가 다 밝아서야 다시 일어나려니까 다리가 저리고, 위로 모두 눌려 있던 터라 이거를 비집고 나오느라고 아주 혼났답니다. 그래 비집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 몸은 피투성이고 도저히 뭐, 흉해서 걸어갈 수도 없더랍니다. 보니까 전부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유복한 가정을 누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 후에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친구분들이 한 댓 분이 그렇게 같이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섯 분이 다 죽지 않았습니다, 딴 사람은 죽었어도. 그게 우연히라고 생각하겠지만 우연히는 아닙니다. 자기가 한 것만치니까. 방에 있는데도 총알이 피해 가더랍니다. 장은 전부 뚫렸어도 그 사람은 감쪽같았답니다. 장이 전부 총알에 맞아서 그렇게 됐는데도 탈각 주저앉으면 요리로 비키고, 아래로 오면 또 위로 비켜 주고 이렇게 총알이 비켜 주니까 다 산 겁니다. 이렇게 해서 6 · 25를 치르고 아들 하나도 없애지 않고 또 그렇게 다복하게 지내다가 여생을 마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데 아슬아슬한 그러한 계기가 아니라면 그런 묘한 법을 그렇게 자기가 감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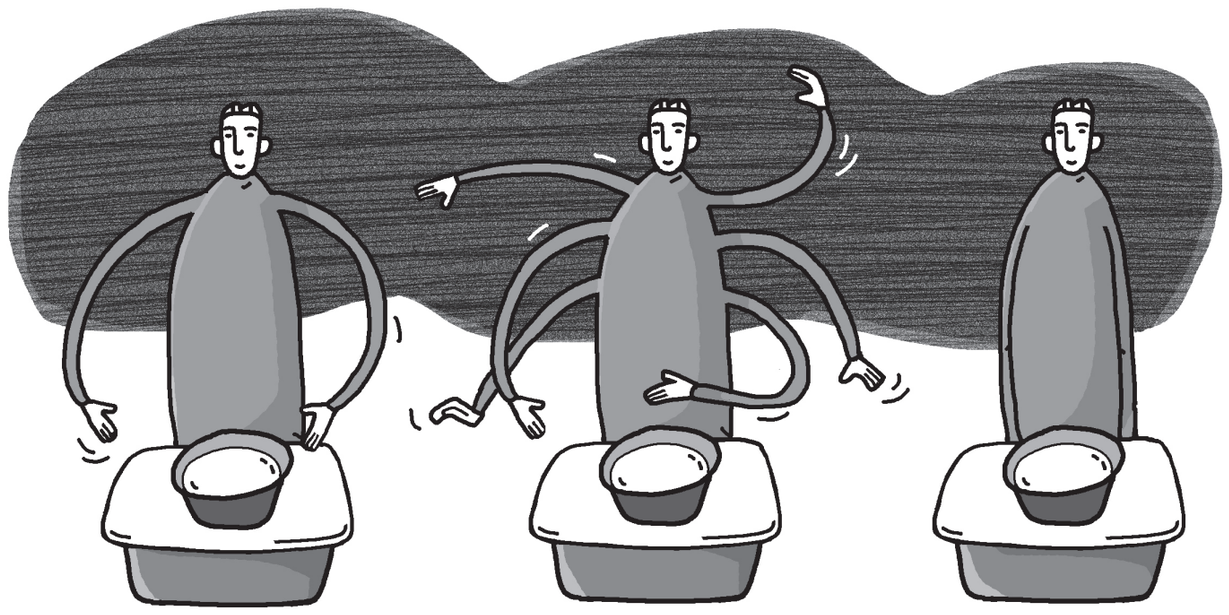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활에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지켜보고, 자기가 한생각을 내놓기보다도 오관을 통해서 들은 거와 내가 내는 마음과 동시에 내가 언제나 그것을 보고 듣고 하되,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시장에 가는 길은 가르쳐 줘도 시장에 가서 시장 보는 일은 해 주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시장 가는 길은 나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따라서 이십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삼십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분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그것은 삼십만 원도 쓸 수가 있고 십만 원도 쓸 수가 있고 백만 원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을 보는 일은 자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거지 누가 이렇게 산다고 나도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깨닫는 문도 천칠백 공안이나 된다는 말이 있듯이, 왜 천칠백 공안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 하면 '사방천' 이렇게도 됩니다. 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방천왕' 이러죠? '사방' 해 놓고 '천' 해 놓고 전체 돌아가는 거를 '도리천' 했단 말입니다. 전체 돌아가는, 일체 만물과 만생, 전체가 우주와 더불어 돌아가는 걸 '도리천' 했단 말입니다. 사방천왕도 천이요, 도리천왕도 천이요, 도솔천왕도 천이다 이거야. 그럼 삼천대천세계는 어떤 것이냐. 그 마음의 한 점이 대천세계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따로따로 이름을 붙여서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군데서 모든 게 나오는 거죠.

금이라는 물건은 하나인데 어째서 금 하나 가지고 수많은 물건이 나왔느냐는 얘깁니다, 이름을 각각 가지고. 또 금 하나로 인해서 수백 가지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듯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도 우주도 물질적인 어떠한 별성도 그렇고 모든 물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나가는 데에 사람의 촉각이나 시각이나 식각이나 감각으로써 내고 들이고 삽니다. 그러나 시쳇말로 한다면 지능이 발달이 돼야만이 물리가 터지고, 또 물리가 터져야 지혜롭게 산다, 이 세 가지가 종합해서 붙어 돌아가지마는, 종합돼 있는 거지마는 언제나 이름은 각각이 되죠. 조금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한데 합친다면 바로 지혜라고 한마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저께 얘기했듯이 불성 자체의 원자력이다. 근본. 우리가 무전자라는 불성 자체가 없다면, 보이지 않는 데 그 생명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유전자의 생명도 활용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력과 원자력이 한데 돌아가는 데는 거기에서 돌아가서 우리가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면 열 개가 되고 열 개가 되면 백 개가 되듯이, 우리도 자식들을 낳고 살듯이 지구에서도 분비물이 어디까지나 나고 들고 나고 들고 이래야만이 그것이, 즉 말하자면 그 모든 일체 만물이 살아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인간에게도 그러한데 우리가 이 한 점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거기에 촉각이나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거나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거나 식각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쓰기만 하지 도대체 이것은…. 아니, 시각적으로 쓸 겁니다. 식각적으로도 못 써. 그건 흐릿해, 아리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각이라 이러는 거는 모든 보이지 않는 데와 보이는 거를 첨보해서, 즉 말하자면 분별을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는 청각도 백각도, 즉 말하자면 지각으로써 돌려라 이겁니다. 이 지각이 돌지 않는다면, 지혜가 돌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근본의 도리를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각은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첨보돼서, 각각 이름은 있지마는 그게 인간의 마음의 한 점이라는 걸로 귀결되는 겁니다. 귀결돼서 가는데 거기에 뒷받침이 또 무엇인가? 우리는 오관을 통해서 바깥과 상대성의 원리를 그대로 응용하고 활용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도 역시 그러하다 이겁니다. 모든 일체 만물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또 그렇게 돼 있는가 하면 우리가 거기에 뒷받침이 되고자 한다면, 어저께도 오신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신통이라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지각으로 하여금, 마음의 지혜로 하여금 지각으로, 즉 누진으로 쓴다 이겁니다. 누진으로 쓸 때에 비로소 오신통을 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눈과 귀와 모든 게 따로따로 있지만 한 몸에 있듯이, 이름은 따로따로 있지만 한 몸에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천안통을 시쳇말로 망원경이라고 해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천이통을 천체 통신, 통신기라고 해도 알아들으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숙명통이니 타심통이니,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요, 남이 지나온 거,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오고 그런 거를 잘 안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요,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요, 전체를 오고 간다고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전체를 듣는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야. 왜? 그것은 보기만 해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어. 단지 내가 보고 듣고 모든 거를 했으면 이것을 내가 먹을 줄을 알아야 하고 갖다 줄 줄 알아야 하고, 이걸 운영할 줄 알아야 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이것이 바로 지혜의 도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한 점의 그 근원도 없는 것이 도니라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수반이 되는데 지금 그

☞ 22면으로 계속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FDA 등록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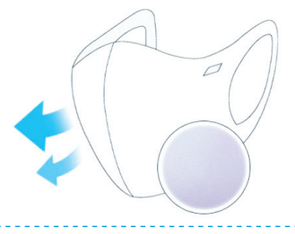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청량한 색상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5색에 **연꽃문양**이 아름답게 인쇄된 여름용 **Cool~ 마스크**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기존제품과 다른점
1.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
2.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음
3. 냉감(시원함 정도)이 우수하여 무더운 날씨에 적합

※ 여름용 마스크는 색상별로 최소주문수량 100개로 개당 판매가는 3,500원입니다.
※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주문제작상품으로 5~7일정도 소요됩니다.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